

기쁜 동년거파보다 10배나 두꺼운 동주물기와는
한번 시골으로
특별전문의 수백종

대원동주물기와 ☎(02)739-8745/735-2344

현대불교

55

세부터의 월급,
국민은행에서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개인연금신탁

가입문의: 080-023-4000

영예회장·노태평/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논설고문: 고은/ 편집국장: 최정희/ 인쇄인: 김규석/ 등록번호: 다-3379/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대표전화: 737-8881/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광고국: 737-0692/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5월 3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금주의 법구

하늘 위 하늘 아래
나라이 홀로 높다.
(수행본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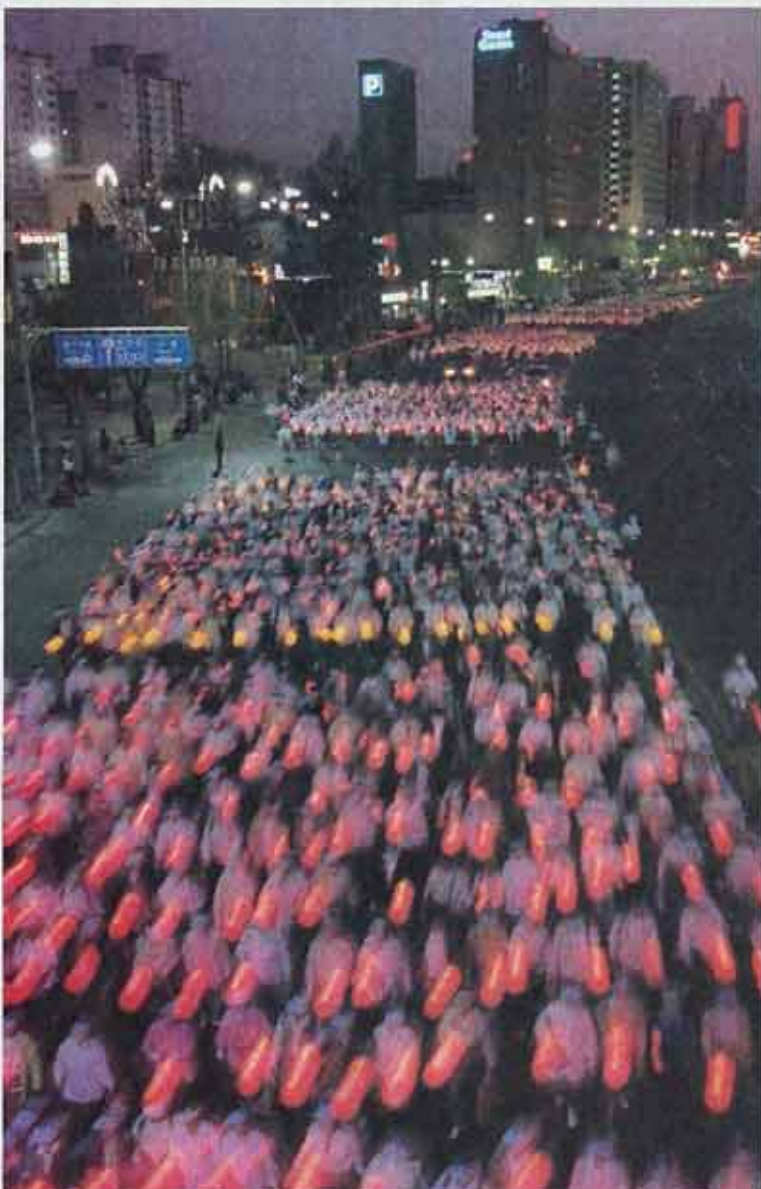
법회 안내

- 불광사 (02)359-5367
- 초하루법회 매일 1일(음)
- 보통법회 매일 15일(음)
- 관음재일 매일 24일(음)
-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 중고생법회 매주 일 오후2시
- 청년법회 매주 보 오후2시
- 삼성암 (02)988-1996
- 독산기도 매일 3일(음)
- 지장기도 매일 18일(음)
- 약수사 (02)877-7514
- 산중기도 매일 1~3일(음)
- 지보도관음기도 매일 18일(음)
- 관음재법회 매일 24일(음)
- 천축사 (02)954-1474
- 관음관음기도 매일 1일(음)
- 인동기도 매일 7일(음)
- 산신재일기도 매일 16일(음)
- 수원 불광사 (0331)46-4879
- 정기법회 매일 8일
- 입사법회 넷째 토 오전 11시
- 관음재일 매일 24일(음)
-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 청년법회 둘째 일 오후 8시
- 김해 연화사 (0525)36-3046
- 초하루법회 매일 1일(음)
- 지장재일 매일 18일(음)
- 관음재일 매일 24일(음)
-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 중·고등법회 매주 일 오후1시
- 인동 대원사 (0571)858-2630
- 초하루법회 매일 1일(음)
- 보통법회 매일 15일(음)
- 지장재일 매일 18일(음)
- 관음재일 매일 24일(음)
-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 청년법회 매주 화 오후7시
- 대불연법회 매주 목 오후7시
- 낙산사포교당 (0396)671-4167
- 고등법회 매주 토 오후2시
- 청년법회 매주 금요일 오후7시
- 입사법회 매일 18일 오전11시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
할·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구독료납부은행지로
3054464

대구 참사에 '大悲의 燈'을

"아픔 나누자"...성금모금·헌혈 교계 확산



다 함께 깨달음의 사회로 지난 29일 여의도 봉족대법회를 마친 50여
사부대중은 손에 손에 연등을 들고 '서기모니
불'을 정진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되고자 열심하면서 조계사까지 장장 4시간의 제등행렬을 가
졌다. <관련기사 18면> <사진=박재환 기자>

지난 28일 발생한 대구 가
스폭발 참사에 불교계의 운명
이 잇따르고 있다.

조계종은 사고직후 상방을
통해 모은 불자들이 고통을
분담해 줄 것과 각 사찰에서
희생영가들을 위한 극락왕생
기도를 매일 올려줄 것을 단
부했다. 태고종도 대구경북 총
무원들 중심으로 희생자 49명
와 천존재를 준비하고 있으며
천태종도 각 종단들도 희생자
들을 위한 찬송가 및 유가족
에 위로금 전달 등 희생자들
의 아픔을 위로하고 빠른 쾌
유를 위한 대책 마련에 온 힘
을 쏟고 있다.

대구사원 주지연합회(회장
원림스님)와 대구·경북 5개
본사 주지스님들은 사상자들
이 분산되어 있는 불교병원들
13개 병원을 차례로 방문 회
생자들에게 대한 분향과 위로의
뜻을 전했다. 대구사원주지연
은 6일 열릴 부처님 오신날
봉족대법회를 사상자들을 위
한 위령제와 병행키로 결정하
고 성금모금 등을 통한 구체
적인 지원의 손길을 펼칠 계
획이다. 또한 무공스님(동화사
주지)은 스님 10여명은 28일
과 30일 오후 사대해본부를
방문 원주 총무원장 스님이
기탁한 조의금 1천만원과 3백
만원씩을 각각 전달하고 희생자
들에 조의를 표했다. 대구 사
원연 스님 40여명도 오후 5시
이반사고로 많은 피로를 입은
영남공학교 앞에서 희생당하

학생들의 명복을 비는 목걸이를
살사했다.

대구 대불현 학생불자들은
28일 헌혈증서 50여장을, 대전
대불현도 29일 헌혈후 헌혈증
서를 부상자들에게 전달했다.
이외에도 부산 (사)불국토
(이사장 김관스님)와 영주암
(주지 범산스님)이 오는 7일
영주암에서 사고 부상자들이
헌혈을 실시할 계획에 있는
등 전국 각 사찰 및 신령단체
들이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
들에게 활극 나서고 있다.

불교인권위도 지난 28일 성
명을 통해 "한 불교도들은 이
번 참사로 슬픔을 가누지 못
하고 있다"고 밝히고 "희생자
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말했다.

한편 불자가업인들의 보사
운정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심심그룹 이근희 회장은
10여만원, 상공그룹 김석준 회
장은 3여만원을 각각 위로금으
로 전달했다.<관련기사 18면>
(한영우·이은호 기자)

청교련·본사등 성금 모금

본사는 한국불교사회복지회
(회장 시연스님) 청소년교화
연합회(회장 현성스님) 주간
불교와 함께 대구 참사 이재
민을 위한 성금을 부처님 오
신 날인 7일까지 매일 오전9
시~오후6시 종각역 제일은행
본점앞 광장에서 모금한다.
735-8165(청교련) 733-3363(불
교사회복지회)737-8881(본사)

부처님 오신 날 특집 28면 발행

- 53 선재들의 발원 ————— 2면
- 명사들이 좋아하는 법구 ————— 6면
- 타종교 성직자 봉축 설법 ————— 8면
- 마라도서 통일백일기도 ————— 19면

봉축특집-전법

- 21면 ————— 내가 가본 녹야원
- 23면 ————— 좌담 '차세대 포교'
- 24면 ————— 포교사 설문조사
- 27면 ————— 사카족의 후예들

7일부터 배부

정하다 「불자 가정」스티커 붙입니다

우리는 불자 가정
나와 이웃과 자연은 하나

한국불교종단협의회·대한불교진흥원
현대불교신문사
○스티커 시인 권본

**'나는 불자' 자부심으로
부처님 세상 만들기
앞장서는 서원실천**

우리는 흔히 '2천만 불자'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2천
만의 불자 모두가 스스로 불자임을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스스로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불자
로서의 긍지를 갖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나는 불자'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러한 자부심은 나와 이웃이 더불어 사는 이 세상을 부처님
세상으로 가꾸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대한불교진흥원은
불기 2539년 부처님 오신날을 기해 '우리는 불자가정, 나와
이웃과 자연은 하나'라는 불자의 집 스티커 붙이기 운동을
진행합니다. 이 운동은 불자 스스로가 자긍심을 갖고 아
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앞장 서겠다는 서원의 실천이기도 합
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보급 방법: 원하는 개인, 사찰, 단체에 드립니다.
- 기 간: 오는 7일 부처님 오신 날부터 2천만 불
자의 가정에 스티커가 부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운동을 전개합니다.
- 보급 문의: 현대불교신문사(737-8881, 722-4162)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공동주최: 현대불교신문사·종단협·진흥원

奉祝 - 부처님 오신날



스스로를 의지하라. 眞理의 가르침을 의지하라.

眞理의 나무 아래 깨달음을 얻은 순간부터
가르침의 긴 旅行은 시작되었다.
영겁의 歲月이 흐른 지금에도
인도라는 땅 곳곳에서
배어나오는 苦行의 발자국 —
大韓航空이 봄베이로 每週直行합니다.

예약 및 문의: (02) 756-2000



인도 부다가야의 부처님 발자국